

한화그룹, KAI 경영참여 본격화 ‘항공·방산 패키지’ 시너지 시동

전투기 엔진 등 협력범위 확대
경영 참여방향 국감 쟁점 전망
독립성 유지·이해상충 해소 과제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완제기 역량과 자사의 항공 엔진·무장 역량을 결합해 추진하는 ‘항공·방산 패키지’ 시너지 구상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KF-21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수주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한화의 KAI 경영 참여 범위와 향후 계획이 추가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사업비 약 7535억원(2026~2033년) 규모의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가 6~8일 진행된다. ADD는 12일 협상대상 업체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내 계약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로 재공모한 레이더 제거기·레이더·탐색기 3개 품목은 2일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KF-21의 핵심 무장인 국산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화가 구상하는 완제기·무장 결합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수주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

스페이스(D&A)·현대로템 진영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체 덩티드 램 제트 추진기관 연구 실적과 정부 과제 수행 경험(2021년 이후 6건 중 5건 수행)을 앞세운다. LIG D&A는 KF-21 단거리 공대공-II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개발 경험을, 현대로템은 추진기관 핵심기술 과제 수주 이력을 내세워 기술 맞대결을 펼친다.

한화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가운데 양사의 항공·방산 협력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화는 이미 KF-21 최초 양산 부품(4731억원), 전투기 엔진, AESA 레이더 및 임무컴퓨터를 공급하는 KAI의 핵심 파트너다. 한화는 이에 머물지 않고 자사의 엔진·레이더·유도무기와 KAI의 완제기 체계종합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최근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과 KF-21·FA-50 무장 통합 및 공동 수출 마케팅 MOU를 잇따라 체결했다.

KAI는 LIG D&A, 현대로템 등 다른

무장체계 기업들과도 항공무장 개발 및 패키지 수출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화가 구상하는 시너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향후 경영 참여 방향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 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에서는 한화의 추가 지분 확보 계획과 이사회 진입 여부,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의 지분 매각 시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완제기 체계종합업체로서 KAI의 독립성 유지와 이해상충 해소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KAI 노동조합은 경영정보 접근 및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내달 14일 서울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한화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의 KAI 경영 참여 구상은 한국 항공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너지 차원”이라며 “국감 등을 통해 기존 협력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조율이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metro

LS전선·가온전선, 케이블 등 美 공급 확대

추가 수주·실적 성장 기대감

LS전선과 자회사 가온전선이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수요 증가에 맞춰 케이블·버스덕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서버 고성능화로 대용량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설비 수요가 늘면서 양사의 공급 경쟁력이 추가 수주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설비 발주가 LS전선의 버스덕트 공급과 가온전선의 현지 케이블 생산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생산한 버스덕트를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LSCUS를 통해 현지 데이터센터에 공급한다. LSCUS는 중·저압 케이블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영업·엔지니어링·납품·사후관리도 담당한다.

LS전선이 지난 5월 LSCUS와 체결한 버스덕트 장기 공급계약의 예상 공급액은 약 2조~4조원이다. 계약기간은 2030년 말까지다.

LSCUS는 글로벌 빅테크와 생생형 AI 기업에 이어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공급 대상을 넓혔다. 지난 8월에는 미국 AI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2000억원 규모의 버스덕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도 진행하고 있다. LS전선

은 구미 공장 증설과 멕시코 생산법인 건설이 연말 완료되면 버스덕트 생산능력이 현재의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공급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LSCUS는 올해 상반기 미국 공장 가동률 100%를 기록했으며, 매출 2884억원과 순이익 216억원을 거뒀다.

LS전선은 생산능력 확충과 함께 서버 고성능화에 대응할 제품군도 보강하고 있다. 지난 29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6’에서 서버랙 내부용 버스바와 커넥터를 공개했다. 랙 인군까지 대용량 전력을 전달하는 버스덕트에 이어 랙 내부에서 전력을 분배·연결하는 제품까지 확보했다.

가온전선의 케이블 공급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설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자체 발전소 구축 사업에서 약 500억원 규모의 배전케이블을 수주했다. LSCUS는 가공선 생산설비 투자도 추진해 기존 배전 중심의 미국 사업을 송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내부 배전설비부터 발전소와 연결망까지 전력 인프라 전반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미국에 이어 국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신설 등 설비 확충도 양사의 케이블·버스덕트 판매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GM, 뷰익 론칭… ‘엘렉트라 E7’ 출격

엘렉트라 E7, PHEV 형태 채택
“한국 고객에 새로운 선택지 제시”

“뷰익은 120년 이상의 헤리티지와 차별화된 디자인, 직관적인 기술, 편안한 주행 특성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한국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핵터 비저레알 한국GM 사장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뷰익 브랜드와 새롭게 출시한 엘렉트라 E7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뷰익이 선봉장으로 내세운 엘렉트라 E7은 전장 4850mm 전폭 1910mm 전고 1675mm 휠베이스 2850mm 크기를 갖춘 모델로 파워트레인인 1.5리터 자연흡기 엔진과 165kW 구동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형태를 채택했다. 배터리는 31.7kWh 용량을 탑재해 복합 기준 최대 126km를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다. 전기모터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면 추가 주유 없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한국GM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공개한 뷰익 엘렉트라 E7에 적용된 냉장고와 테이블 모습. /양성운 기자

수 있는 1000km 이상의 통합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직류(DC) 급속충전 지원으로 배터리를 3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소비자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15.6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와 8.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했다. 특히 2열 듀얼 멀티 테이블과 빌트인 냉온장고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

다. 여기에 차량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차량 안팎에서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커넥티드 서비스 ‘온스타’도 적용했다. 온스타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과 원격 시동, 실내 온도 설정, 잠금·해제 등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LG 마이컬’ B2B 사업 확대

스타벅스와 ‘마이컬스타’ 이벤트

LG전자가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컬’의 활용처를 넓히며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나선다. 스타벅스와 다화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업에 나서는 한편 기업과 군부대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광고·제휴를 접목한 신규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오는 오는 31일까지 LG 마이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이벤트 ‘마이컬스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된 LG 마이컬으로 텀블러를 세차려 세척한 뒤 앱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e카드와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한다.

LG전자는 공공기관과 ESG 활동을 연계하며 공급처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에 LG 마이컬을 공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일화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LG전자가 다화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텀블러 전용 세척기 ‘LG 마이컬’ 사용 인증 이벤트를 연다. /LG전자

활용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공군 오산기지에 LG 마이컬 10대를 공급한다. 군 장병들이 병영에서도 텀블러 등 다화용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B2B 수익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제품 디스플레이를 광고 매체로 활용하고, LG 마이컬 앱에서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쿠폰으로 교환하는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선업계, 임단협 희비… HD현대重 ‘진전’ 한화오션 ‘교착’

HD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마련
한화오션, 성과급 등 입장차 여전히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접점을 찾은 반면 같은 날 교섭에 나선 한화오션은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

측은 기본급 12만원 정액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인상액에는 호봉 승급분 5만원이 포함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2차 본교섭을 열고 14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6월 2일 첫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교섭 과정에서는 임금 인상 폭과 고정급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졌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에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반면 한화오션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혜은 기자

현대차 ‘마이홈차저’ 구독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부담은 낮추고, 고객 편의성은 높은 구독형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충전사업자 채비와 협력해 가정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구독 서비스 ‘마이홈차저’를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소유하고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에 거주해 전

용 주차 공간을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홈차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7kW(킬로와트) 가정용 완속형 전기차 충전기 기기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월 최소 약정 충전량은 300kWh, 충전 요금은 kWh당 245원으로 고객은 기기 및 설치비 없이 최소 약정량 기준 월 7만 3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채비 앱이나 채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보유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